

체벌 연구일기 사례

사례 1)

어린이집 소개

우리 교실에는 1994년 1월 부터 5월생 까지 12명의 유아가 있다. 여아가 7명, 남아가 5명이다. 교실에는 교구장이 하나 있고, 미끄럼틀, 비행기 시이소, 2층 침대, 낮은 책상이 있다. 그 외에 교사 책상, 키보드, 책꽂이, 칠판이 있다. 한 쪽 벽면이 모두 옷장이라 유아의 옷이나 가방을 넣을 수 있으며, 창문이 하나 있으나, 옆 건물에 막혀 별이 들어오지 않는다.

12월 2일 부터 체벌하는 경우에 주의하며, 유아들과 생활하였다. 12월 7일이 유치반 재롱잔치라 어린이집 전체분위기가 어수선하고 시끌벅적하였다. 각 반에서 맡은 준비물이나 행사준비 사항으로 아이들을 관찰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내가 아이들은 체벌할 때는

1. 다른 유아가 때리거나 물때,
2. 장난감 다툼이 심할 때
3. 일부러 토하거나 음식물을 쏟을 때
4. 간식이나 점심을 안 먹고 돌아다닐 때
5. 수업시간에 분위기를 많이 흐릴 때
6. 양치질하여 화장실에 가서 물장난을 해서 옷을 다 버렸을 때 등 등 참 많았다.

체벌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대부분의 경우 time-out 을 하여 2층 침대나 화장실에 5분 정도 두거나, 엉덩이를 한 두대 때려주었다. 가끔 꿀밤을 주거나 심한 경우에는 손등을 한 대 때려 주었다.

97년12월 4일

수민이가 해리가 가지고 놀던 바구니를 빼앗아 “김 수민”하고 부르자, 쳐다보더니, 다른 교사가 또 “김수민”하니 바구니를 해리에게 주고 “우리 엄마한테 이를꺼야.”하고 우는 시늉을 한다. 영수가 막대블럭으로 대환의 머리를 때렸다. 대환이 울자 영수가 교사를 쳐다본다. 교사가 다가가 영수의 막대블럭으로 영수의 머리를 때리자 영수가 운다. “너두 아프지? 친구한테 미안하다 해라” 하니 영수가 울다가 손으로 대환의 어깨를 쓰다듬는다.

사례2) 동일한 시설

1997년 11월 4일 10시 5분 작업시간

크레파스로 그림을 그리는데 정민이는 크레파스를 갖고있다. 친구 크레파스도 가지고 가서 갖고 있어서 친구주라고 하니 들은 척도 안 한다. 다가가서 친구 크레파스 주라고 다시 얘기하고 크레파스는 갈면 쓰지 못한다고 얘기해도 가만히 있다. 정민이 크레파스를 뺏아서 교사책상에 올려놓으니 운다. 데리고 교실 밖으로 나가니 집에 가겠다고 버티며 신발장에서 신을 꺼내 내려 갔다. 교사는 제지하지 않았다.(정민이는 교사가 아이가 혼자 집에 가는 것을 매우 싫어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일마 후 1층에서 원감님 손에 이끌려 정민이 올라왔다. 영문을 모르는 원감님은 아이가 혼자 나가려 했다며 데리고 오셨는데, 교사가 자초지종을 얘기하고 그대로 놔두시라고 하니 정민이에게 몇마디 하시더니 내려가신다. 계속 나가겠다는 정민이 원 밖에 나가지는 않고 1층에 있다가 2층에 올라왔다. 식사시간에도 혼자 교실에 남아있다가 식사가 다 끝날 때쯤 내려 왔다. 교실에 들어와 김선생에게 물어보니, 김선생이 먼저 올라와 정민이에게 “밥 먹을래.”하니 고개를 끄덕끄덕 내려보냈다한다. 정민이는 밥먹은 후부터 잘 놀았다. 귀가 때 엄마에게 얘기하니 정민이는 집에서 고집을 많이 부려 혼나기도 하는데, 자기가 스스로 풀릴 때까지 그냥 놔두는 편이라 한다. 어린이집에서 고집피우면 혼래주라고 얘기하시며 가셨다.

11월 11일 오후 간식시간

정민이는 지난 주부터 나와 대립이 심하다.

오후 간식시간, 아이들은 다 먹고 정민이만 남았다. 정민이는 자기 자리가 아닌 다른 곳에서 아이들과 놀고 있다. “정민아, 간식 먹어라”해도 쳐다보지도 않는다. 다가가 “정민아 간식먹고 놀아라”하니 불멘소리로 “간식 안 먹어”한다. “먹기 싫으면 선생님께 와서 간식 먹기 싫다고 얘기하면 다른 친구들과 나누어 먹잖아, 니가 여기 앉아 있으면 저 간식은 어떻하니. 자리로 가자.” 꿈쩍도 한해 결국 아이를 들고 와서 자리에 앉혔다. “남은 요구르트 먹어라. 빵은 친구들이라 나누어 먹자.” 얼굴에 화가 난 정민이. 내가 빵을 꺼내 이에 저에 불러 입에 넣어주고 한 입 남아 정민이 입에 대주자, 손으로 탁 치버린다. 화가 난 교사, 아이의 몸을 뒤집어 엉덩이를 두대 때려주었다. 정민이가 울면서 엄마를 찾는다. “별일도 아닌 것으로 화를 내게 만드니. 내가 억지로 빵 다 먹으라고 한것도 아니고 다른 아이들과 나누고 한 입 먹으라 한건데 왜 빵을 던지니? 너 때문에 너무 화나고 속상하다.” 정민이 화가 나서 운다. 3시 40분 쯤 일어난 사건. 4시전에 정리하고 청소해야 하기에 마음이 급하다. 아이들을 내보내고 청소하려는데 정민이 바닥에 누워 있다. 우는 건지 노는 건지. 청소기를 돌려도 꿈쩍도 않는다. “정민아 비켜라 청소해야해” 그래도 정민이 움직이지 않아 번쩍 들어 다른 곳으로 옮기니 또 옮기 시작한다. 걸레질할 때는 건드리지도 않았다. (왜? 피곤한니까)

우리반은 5세아가 41명에 교사가 2명이 있다. 평소에도 체벌을 많이 하는 편이라고 생각하였는데 관찰일기를 쓰려하니 하나하나 쓸 수 없을 만큼 횟수가 잦았다. 여기서는 요즘 특히 갈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정민이를 중심으로 썼는데, 이외에 수업시간에 떠들때 장난감으로 때리거나 다룰 때, 식사나 간식시간에 장난치고 먹지 않을 때, 교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때, 등 하루 중 어느 때든 조용할 때가 없고 교사의 큰 소리가 나지 않을 때가 없다. 특히 연구일기는 쓰는 동안 동료 교사의 휴가로 혼자서 3일 동안 40명을 대해야 했다. 평소보다 교사가 더 짜증과 화를 많이 내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학기초부터 시작하여 거의 9개월을 함께 생활한 아이들이지만 체벌을 하게 되는 경우는 달라지지 않았다. 아이들도 교사가 규제하거나 스스로 해서는 안된다는 것에 민감해지기 보다는 대충 눈치 보며 넘어가려는 경향이 강함을 느낀다. 이는 한 아이, 한 아이에 대한 깊은 관심과 이해로 체벌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일회적이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여겨지며, 교사와 아동간에 체벌에 대한 이해가 매우 다르며 일방적이지 않나 생각하게 한다. 그러나 하루종일 아이들과 시달리면서 각각의 아이들에 대한 배려나 장기적인 계획은 무리라는 점도 있다고 생각한다.

체벌에 대한 일기를 쓰고 짧은 생각을 하며 체벌의 효과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